

성명	한글 (한자, 예명)	진신애	지역	광양시	사진
	분야	독립운동	출생 ~사망	1900~1930	사진 없음
개요	독립운동가				
연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00년 7월 3일 출생 ▪ 1919년 3월 10일 독립만세운동 ▪ 1930년 2월 23일 사망 ▪ 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 추서 				
생애 및 활동	<p>진신애(陳信愛)는 1900년(광무 4) 7월 3일 전라남도 광양(光陽) 다압면 신원리 원동마을 태어났다. 1919년 2·8 독립선언서가 광주지역 청년들에게 전달되자 독립운동에 대한 열기가 고취된 상태에서 김철(金鐵)·최정두(崔正斗) 등이 고종 황제 국장(國葬)에 다녀오면서 독립만세운동에 대한 계획이 시작되었다.</p> <p>그는 1919년 3월 10일 광주 수피아 여학교 교사로 1919년 3월 10일 광주에 위치한 장터에서 독립만세운동이 시작되자 동료 교사 박애순(朴愛順) 등과 함께 사전에 제작해 두었던 태극기와 독립선언서를 시위 군중들에게 배포하고, 여학생들 선두에 서서 ‘독립만세’를 선창하였다. 긴급 출동한 일본 경찰의 무력진압 외중에 일본 경찰에게 체포되었다.</p> <p>1919년 3월 30일 광주지방법원에서 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약 1년간의 옥고를 치렀다. 1990년 정부로부터 공훈을 인정받아 건국훈장 애족장에 추서되었다. 만세운동을 하였던 곳은 교회와 진신애의 생가가 있었으나 멸실되어 현재에는 마을 앞길과 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다.</p>				
기록물 참고문헌	<p>국가보훈처 대한민국 독립운동가 광양만신문 “광양의 호국항쟁유적을 찾아서 41. 진신애 생가터” 2013. 12. 19 한국역대인물 종합정보시스템 자료</p>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